구원열차도 검표가 필요하다

(레24:10~23)

10.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11.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12.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4.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15.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16.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구원열차도 검표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구원열차도 검표가 필요하다'

제가 주로 경험한 것은 독일입니다만 유럽에서는 기차나 지하철이나 tram(노면전철) 같은 경우에 검표시스템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유롭게 표를 사서 기차에 탑승 할 때까지 표를 샀는지 안 샀는지 모릅니다. 왕왕 짓궂은 젊은이들이나 진짜 돈이 없거나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걸릴 확률이 적기 때문에 표를 사지 않고 기차를 탑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간혹 검표원이 불시에 표를 검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무임승차가 발각되면 요금의 몇 십 배 되는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검표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것은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적발 되었을 때에 몇 십 배를 물게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하는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으로 요새는 발각이 되어도 차표만 사도록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무임승차 때문에 중간시스템으로서의 검표원의 등장이 필요불가결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안식일과 절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절기의 근본 의미도 안식일과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생긴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쉬신 것은 인간과의 만남 때문이고, 하나님은 창조사역을 계속 해나가시는데 이제는 이미 창조된 것들로부터 제2의 창조를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하나님의 창조가 자연의 창조로 삼라만상의 창조였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문화 창조의 사역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나가시기 위해서 인간을 태우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고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위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사역을 인간을 통해서 하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계속 된다는 것은 마치 열차가 진행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때에 인간을 그 열차에 태우셨고 이제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듯이 인간이 살아갈 때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스스로 생각하며 이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열차이자 문화 창조의 열차를 올라타게 하신 것이 안식일의 의미로 계속해서 구원열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열차는 티켓을 들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그 티켓을 내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열차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매 7일 째마다 돌아오는 안식일과 일 년에 다섯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 절기의 순환 안에서 선민이 살기 때문에 삶 자체가 이미 구원열차를 타게 되는 것이고 창조사역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열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원열차에도 티켓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켓만 쥐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티켓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티켓은 한 번 기차에 올라탈 때에 적어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티켓은 사기만 하고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열차의 티켓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끝까지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현실을 볼 때에 문제가 구원열차의 티켓을 검사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열차가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필요한 티켓을 산 것이 아닌데 나는 지금 구원열차를 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표를 해서 정말로 구원열차를 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무임승차와는 다른 점이 무인승차는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 티켓을 사지 않고 가는 것인데, 지금 교회 안에서의 구원열차의 문제는 자기는 딴 곳으로 가고 있으면서 구원열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표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방송이 적게나마 그런 검표원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구원열차를 올바르게 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나 스스로 나의 티켓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훼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였으니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그의 처분을 묻고 가둔 채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이 훼방과 모독을 당했는데 그 사람을 어찌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독하는 것을 들은 자들이 그를 끌고 진영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진영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선민의 경계 바깥으로 내쫓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안수한다.’는 뜻은 여호와의 이름이 훼방 받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훼방 받았음을 경험한 경험이 그대로 마음에 기억되고 있으면 선민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훼방 받는 기억을 다 몰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물인 양에게 안수할 때에 나의 죄가 이관되는 것이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십니다. 단지 이름을 훼방했을 뿐인데 아마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자들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명령하실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일까요?

열차나 비행기나 전철에 탑승하려면 ticketing을 해야 합니다. 이 티켓팅의 원리라고 까지 할 것이 있겠느냐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중에 행하는 티켓팅을 좀 분석해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티켓팅이 이루어지느냐면 우리 마음속에 목적지를 결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산을 가야겠다고 목적지를 마음에 정하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편을 이용하기 위해서 역에서 표를 사는 것이 티켓팅입니다. 표를 산 다음에 그 표를 쥐고 비행기나 기차나 전철을 타고 마음속에 생각했던 목적지에 실제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마음속에 목적지의 이름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 목적지로 가기 위한 교통편을 위한 매표를 하고, 세 번째로 그 표를 들고 실제로 교통편에 올라가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쳐서 티켓팅의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한 죄를 선민이 머무는 진영 바깥으로 끌고 가서 그 훼방한 것을 경험한 모든 사람의 기억을 되돌리며 마음속에서 지운 후에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바로 티켓 검사입니다.
구원열차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선 우리 마음을 이동시키는 열차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는 실제 존재를 들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이름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마음의 지성소에 이름을 들여놓게 되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해서 갈망하고 욕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존재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한 것이 바로 성막 내에서 분향단으로 상징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를 열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열망하게 되면 마음속에 들여놓은 그 이름이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마음에 돈을 들여 놓았으면 돈을 벌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 돈을 빼앗아 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자식을 들여놓았으면 내 자식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은 좋은 일이고 아닌 것들은 나쁜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이 죄악이지만, 그 죄악 상태에서 자기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다고 믿는데 그 자체는 착각입니다.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등잔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밝히 보면서 그 실제의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가져서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진설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모든 인간의 구조를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보다도 더 완벽한 진리로서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민은 마음의 지성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담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담기지 않고 다른 것이 담기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담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욕구하게 되고 열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선민입니다.
마음의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으면 밝은 등잔불이 생기므로 여호와에게 기쁨이 되는 일은 옳은 일이고, 여호와를 걱정하게 하는 일이면 그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가치들은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마음 안에 들어 있을 때에 밝음이 주어지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존재로 배 부르려고 사는 것인데 이것이 선민으로서 올바르게 티켓팅을 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와 있고 건강이 들어와 있고 출세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므로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과연 구원열차에 합당한 티켓팅을 하고 있는지 검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이야기는 '선민의 그룹으로부터 쫓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진영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진영 안'이라는 것은 선민이 머무는 경계의 안쪽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의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집어넣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돈이라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원하면서 나는 그곳

으로 가기 위해 이 그룹에 속해 있다든지, 빨리 그곳으로 보내주지 않고 이렇게 붙들어 놓고 쓸데없는 말이 많으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첫 번째 대상과 궁극적 관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퍼집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가 바로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됩니다. 돈이 없다고 인상이 팍 찌푸려진 상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 사람은 티켓팅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줄줄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목적지를 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는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진영 안의 교인들 중에서 여기서부터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만족해야겠고, 자식 잘 키워서 만족해야겠고, 승진하고, 권력으로 만족해야겠다고 하는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강단에 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마음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담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기쁘고 여호와를 나의 재산으로 삼고 기업으로 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지성소에 담고 있는 자들을 끌어 들여서 그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망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갖다 대므로 교회에 나타나는 증거는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옥으로 가는 죗값을 멸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조건 천국으로 간다고 결정해놓고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마음의 지성소에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고 그것을 열망하는 분향단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가늠하는 등잔대의 불을 켜고, 여호와 이외의 다른 것으로 배부르기를 시도하는 진설병의 떡 상 체제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다 지옥기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표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업 때문에 걱정이 많은 장로님이 오시면 검표를 해서 지금 티켓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라는데 하나님 생각을 하면 자꾸 기뻐서 싱글벙글 하는 장로님이라면 티켓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인상을 찌푸린다면 지금 티켓팅이 잘못 된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제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시고, 주기도문에서도 "이

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겠다는 결정이 나야하고 이것이 티켓팅을 하며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돈을 집어넣을 때에는 돈으로 기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자식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을 때에는 자식으로 인생을 걸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누리겠다면 대통령이라는 목적지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결정해 놓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면 잘못 배웠기 때문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도둑놈이고 나쁜 자식이고 선민의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마의 종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일이 힘들더라도 검표를 제대로 해서 티켓을 올바로 끊게 만들어야 합니다.

눅12:13-15절에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고, 마19:21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티켓팅을 제대로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선민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이 훼방 받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온갖 나쁜 이야기를 붙여서 훼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잘못 배워서 몰라서 그런 것인지, 선민이 아니기 때문인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선민이면서 잘못 배워서 그런 자라면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만이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칠 때에 반드시 받아들이게 되고, 선민이 아니라면 마음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만 들어가야 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 거부할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를 잘못됐다고 할 것이고 돈을 집어넣고 있는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여호와를 잘 믿으면 돈 벌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사람을 쫓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세 글자를 입으로 백 번 외운다고 여호와가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모든 이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 티켓팅의 과정입니다. 티켓은 여호와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실제 하늘에 도달할 때까지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생활화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군침이 흐르는 모든 이름들이 있습니다. 황금, 승진, 관직, 결혼상대자로서의 아

름다운 여인이나 멋진 남자, 엘리트 코스를 걷는 내 자식 등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는 일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죽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면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나도 모르게 여호와가 아닌 다른 이름이 들어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는 한 반드시 다른 이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이 들어와 있는 것을 열망하고 성취하는 방편으로 여호와를 부르고 예수를 부르게 되므로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결정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훼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들이 검표원으로서 교인들을 올바른 티켓팅이 되고 있는지를 지도해야 합니다. 티켓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가려는 목적지를 결정하는데, 선민의 목적지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목적지는 그것으로 기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려는 사람은 부산에 도착해야 만족하는 것이고, 뉴욕에 가려는 사람은 뉴욕에 도착해야 만족합니다. 그렇지 못한 채 바다에 빠진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선민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는 목적지를 결정한 자입니다. 그러면 분향단의 기도가 열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인가가 등잔대 역할을 하며 인생에 밝음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이 되고 배부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교인들이 구원열차에 합당한 표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부터 검표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그 두 사람부터 검표해서 제대로 된 선민이 되어야 하고, 그 두 사람이 나가서 제대로 된 선민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검표가 없어서 교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되어가고 마음대로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생활화가 티켓팅입니다. 그 티켓팅이 있어야 목적지가 여호와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검표작업을 하세요.
나 스스로 매일아침 말씀을 나누면서 검표를 하고, 내 마음의 지성소의 이름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하고,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검표가 온전하게 나의 티켓팅을 관리해 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2호선 생활 구원열차와 1호선 천국 구원열차를 하차 하지 않고 타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절기와 안식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성막의 등잔불과 진설병 떡 상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죽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죽이라'는 이야기가 '검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설병과 등잔대 이야기는 검표가 제대로 되었을 때에 구원열차를 탄 선민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열차 여행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앞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는 구원열차를 타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논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나도 그렇고 내 이웃의 선민들에 대해서도 늘 검표작업을 하면서 나를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목적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어야 하므로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는 분명한 목적지에 대한 이름이 결정되어 여호와만이 들어와 계셔야 하는데, 온갖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검표작업이 올바로 진행되어서 구원열차에서 하차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열차에 탄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